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Galatians 2:20)

2016. 02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사무엘상 · 사무엘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2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67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2

2016 Febr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전교인	2 10교구	3 3교구	4 17교구	5 6교구	6 전교인
7 전교인	8 전교인	9 2교구	10 1교구 재의 수요일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11 11교구	12 9교구	13 전교인
14 전교인	15 전교인	16 14교구	17 13교구	18 15교구	19 7교구	20 전교인
21 전교인	22 전교인	23 18교구	24 8교구	25 12교구	26 16교구	27 전교인
28 전교인 제1차 학습·세례식	29 전교인					

교회 주요 일정

2월 10일

재의 수요일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2월 28일

제1차 학습·세례식

2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충청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청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청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청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가평·함양동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영광교회 3월 2주 3월 10-12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영광교회 3월 2주

매일묵상 Q.T.

“성령은 능히 너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본문 사무엘상 25:23~35 찬송가 200장

>>> 본문 해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해 진군한다는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급히 식물을 준비하고 다윗을 마중 나갔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죄는 바로 나발의 아내인 자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장군께서는 나의 몸품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자라는 뜻의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이고 하는 일도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 자신이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다고 사과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 진실하고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겸손한 모습에 마음이 가라앉은 다윗은 나발에 대한 복수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유순한 태도와 겸손한 말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방지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직접 나발을 죽인다면 이는 곧 살인 행위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게다가 복수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과 슬기로운 말을 들은 다윗은 결국 그녀의 요청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지식을 갖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소서.

“아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중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중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약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중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중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중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었나니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중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도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 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나발의 악행

본문 사무엘상 25:36~44 찬송가 279장

» 본문 해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의 술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돼지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습니다.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은 아비가일과 혼인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들지만, 3,500여년 전 팔레스타인의 풍습상,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내와 절제로 원수갚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다윗은 나발 사건 외중에 만난 현명하고 슬기로운 여성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비가일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나발을 심판하셨습니다. 구제를 싫어하고, 이웃을 모욕하며, 탐욕에 사로잡힌 나발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죽음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온갖 잘못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재물과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는 급작스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기도 제목

세상의 헛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게 하소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
 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
 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
 시매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도 여호
 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
 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
 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
 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
 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
 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본문 사무엘상 26:1~12 찬송가 585장

>>> 본문 해설

나발 사건이 있는 후, 하길라로 피신한 다윗은 이곳에서도 마을 주민들의 밀고를 당했습니다. 사울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은 피곤에 지쳐 동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사울을 살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사울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수차례나 다윗을 추격하였지만 한번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번번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다윗을 결코 사로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다윗의 부하들은 그를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언제 사울의 칼에 그들 자신이 죽음을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라 하여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비록 자신의 신변에 피해가 올 망정 결단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심판과 복수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에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정녕 모든 복수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알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세상의 삶 속에서 항상 악을 선으로 갚는 지혜를 주소서.

‘십 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3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 치니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4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5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벨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 쳤더라 6 이에 다윗이 헛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7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나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던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하였도다

본문 사무엘상 26:13~25 찬송가 274장

>>> 본문 해설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너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아브넬을 꾸짖었습니다. 물론 아브넬도 사울 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사울은 순간적으로 다윗의 손아귀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멀리 서서 사울을 향해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지 말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암살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온유한 방법으로 사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도 역시 이런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호소를 들은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일시적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대적하였습니다. 회개는 일시적 뉘우침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함께 평생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였기에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참된 회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벨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나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며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와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버락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산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한탄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 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위험

본문 사무엘상 27:1~12 찬송가 322장

>>> 본문 해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자신을 쫓던 유랑민 600명과 자기의 가족들을 대동하였습니다. 참으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부하와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국경을 넘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후에야 비로소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윗이 도주한 곳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블레셋 땅이면 사울이 추격해 오지 못하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인 블레셋은 아무래도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계산과는 달리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친 것은 신앙적으로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불신 이방인과의 타협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세속적 방법을 사용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로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이런 위급한 순간에는 세속적 방법을 사용했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는 실수를 범하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기스는 수도 가드에 머물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드보다는 시골 땅인 시글락 거주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요청에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블레셋의 수도 가드는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가드에 머문다면, 적어도 블레셋 왕과 함께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신전 예배에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여러 종교 행사(우상 숭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비록 잠깐 동안 블레셋에 도망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다윗은 이 와중에서도 결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런 우상 숭배의 부담이 없는 시골 땅을 망명처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 숭배를 하거나 범죄와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 기도 제목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육백 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 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굴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굴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일 년 사 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겔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겔과 겐 사람의 네겔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본문 사무엘상 28:1~14 찬송가 317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을 침공을 앞두고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참전을 종용하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블레셋 땅에 망명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도움을 받고 있는 터라 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사울과 원수지간인지라 블레셋으로서는 다윗을 이용하는 것이 참으로 유리하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천하가 다 알고 인정하는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다윗은 블레셋 왕의 요청을 차마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블레셋의 침공으로 큰 위기를 맞이한 사울은 이에 대응할 만한 묘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최고 예언자요 지도자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었습니다. 급해진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에 결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악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룩하고 신령한 관계를 가지며, 성결한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울은 몹시 다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매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점신녀를 찾아가서 장래 문제를 의논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점신녀란 귀신의 영을 받아 앞일을 예언하는 무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매우 엄히 금하시는 우상 숭배 행위였기에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점신녀나 다른 영매들을 모두 추방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상황이 매우 다급해지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도무지 행해서는 안 될 사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일순간적이나마 우리는 이런 사악하고 불경스런 우상 숭배 행위나,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성도로서 하나님이 싫어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지 말게 하소서.

1 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3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4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벰에 이르러 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 쳤더니 5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들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8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9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울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10 사울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1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12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3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찌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겹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판단

본문 사무엘상 28:15~25 찬송가 313장

>>> 본문 해설

엔돌의 접신녀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악령이 사무엘의 모습을 흉내 낸 데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간교하고, 교묘한 술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무당과 같은 우상과의 관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장한 귀신은 사울의 장래를 고지하였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사울을 향해 그가 이번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당할 것과, 또한 그의 아들들까지도 전사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최후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은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다급해진 나머지 접신녀를 찾아가 장래를 물어 보는 등,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 부음을 받은 자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 된 행실을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경성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자칫 죄악 된 삶의 길로 들어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성(驚醒) :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침.

>>> 기도 제목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

*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 네가 여호와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었도 그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 사울 앞애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본문 사무엘상 29:1~11 찬송가 408장

>>> 본문 해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 이스라엘 국경을 넘었습니다. 아벡에서 진영을 갖춘 블레셋 군대의 위용은 실로 어마어마하였습니다.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은 수백 명씩, 혹은 수천 명씩 병사들을 인솔하여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의 위용 앞에 그만 기가 질려 급히 접신녀를 찾아갔던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철저하게 신임하였습니다. 이는 아기스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온 이후 몇 해를 함께 지내도 다윗의 허물과 약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는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옹호하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이만큼 다윗은 블레셋 임금에게 철저하게 신임을 받고,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이웃 나라에까지 망명을 간 다윗의 처지를 살펴볼 때, 어쩌면 다윗은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매우 비관적으로 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결코 비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신을 죄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이웃 나라에 망명 생활을 했지만,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불신 백성들도 다윗을 인정하고, 그의 정직을 신임하였습니다.

블레셋 임금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한 데 반해,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은 다윗을 매우 경계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요, 한때는 블레셋의 최고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용사 중의 최고 용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블레셋의 장군들은 다윗의 참전을 매우 꺼리고 위협스레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극적으로 제외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살핌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전능하신 능력과 오묘하신 방법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 기도 제목

함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이벵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던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본문 사무엘상 30:1~10 찬송가 353장

» 본문 해설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하였습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길보아 전투에 참전 중이라 마침 이곳은 여자와 노약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된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신 세력들은 성도들이 약한 틈만 보이면 가차없이 침입하여 신앙을 약탈하고,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아이들이 약탈당한 것을 발견하고는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그는 울만한 기력도 없었습니다. 망명 생활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불상사까지 겹쳤으니, 다윗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불행은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방 불신지역으로 도망친 데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응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길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하였습니다. 다윗 역시도 아내와 자식을 약탈당했는데, 이제는 부하들까지 자신을 치려 하니 다윗의 형편은 참으로 다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 이야말로 환난 날의 유일한 피난처요, 또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공략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에봇은 조끼 모양으로 된 제사장 의복 가운데 하나로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결코 인간적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였습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소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²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³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⁵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⁶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⁷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⁸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육백 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⁹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백 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본문 사무엘상 30:11~20 찬송가 425장

>>> 본문 해설

아말렉 족속에게로 향하던 다윗은 도중에 애굽 출신 노예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의 노예로서, 시글락 침공 때 전투에 참전했다가 병이 들어 버려진 노예였습니다. 다윗은 매우 급하게 아말렉을 공략하기 위해 가는 중이었지만, 이런 불쌍한 노예를 그대로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인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종에게 아말렉 군대로 인도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아말렉의 주인에게 넘기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군대로 인도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아말렉에 넘기지 않을 것을 약속한 후에 그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군사들을 찾아갔을 때는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여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다윗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들을 급습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약대를 타고 도망간 사백 명 외에는 다 진멸하였습니다. 다윗은 속전속결로 그들의 허를 찔러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가족, 식구들을 무사히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전공은 아말렉이 대대로 이스라엘에 의해 진멸되리라는 예언을 성취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와 뽕치에서 뽕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안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 떼와 소 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본문 사무엘상 30:21~31 찬송가 220장

>>> 본문 해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많은 노획물을 앞세우고 돌아온 다윗의 군사들과 지쳐서 뒤에 남아 있었던 200명 사이에 일종의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노획물을 분배할 때 200명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22절). 다윗은 단호히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똑같이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24절). 그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발휘되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하나의 전례를 남기는 좋은 판결을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25절). 이스라엘은 같은 자격과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간 사람도, 나가지 않고 후방에서 지원한 사람도 모두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일은 앞으로 다윗의 통치를 기대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탈취한 것을 평소 왕래하던 여러 유다 성읍에 보내어 같이 나누었습니다(26절). 여러 성읍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다윗이 선물을 보낸 마을 목록은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헤브론으로 목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31절). 헤브론은 잠시 후 다윗이 왕으로 취임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이새의 일곱 아들과 구별되어 기름부음을 받은 것처럼, 헤브론도 유다의 열두 성읍들과 구분되어 다윗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적을 이긴 즐거움을 온 유다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사람들의 지지와 호감을 받게 되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는 다윗의 본은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인간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 기도 제목

나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말게 하시고 생명주신 주님의 본을 따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이백 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 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 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 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 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 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 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와 원수에게 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뱀엘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앓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므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본문 사무엘상 31:1~13 찬송가 446장

>>> 본문 해설

본문은 오랫동안 암시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삼상 9:16). 불행히도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었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실패한 왕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예측하던 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고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군의 시체로 덮였습니다(1절). 사울의 세 아들—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었습니다(2절). 사울은 활에 맞아 중태 빠졌습니다. 함께 하던 자에게 죽여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죽이기를 거부했던 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4절).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의 전쟁 풍속에 따라 전리품을 찾아 시체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주검을 보았고(8절), 자신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사울의 머리를 베어 온 블레셋 영토에 순회시켰습니다(9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는 뱀산 성벽에 못 박아 전시되었습니다. 적으로부터 모욕당하는 사울의 시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모든 자가 받게 될 최후의 모습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화장하여 뼈를 가져다 장사를 지냈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12~13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처음 구원한 성읍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삼상 11장). 그들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은 여호와와의 주권과 섭리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한나가 노래한 것처럼, 살리는 이도 여호와시오, 죽이는 이도 그분이십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온전히 그 주권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성도는 사울로 대표되는 인간 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왕.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온전히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니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3 사울이 패전할 때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5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7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8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시병에 보내고 10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뱀산 성벽에 못 박으매 11 길르앗 아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뱀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아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아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칠 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본문 사무엘하 1:1~16 찬송가 491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웠으나 치참하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완전히 패배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울 왕과 왕자들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고 기록했습니다(삼상 28:18~19).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시글락을 약탈하고 그의 아내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끌고 갔던 아말렉 족속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식솔들과 노획물을 이끌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쉬고 있던 3일째에 사울의 진에서 한 소년이 전쟁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1~2절). 전쟁터에서 온 소년은 먼저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며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했습니다(4절). 이에 다윗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하자 그는 자결한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5~10절). 아마도 다윗이 사울로부터 무고하게 핍박받았다는 사실을 감안,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뿐 아니라 여호와와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한 일로 인해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12절). 그의 예측은 빗나갔고 다윗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했던 아말렉 소년은 여호와께 기쁨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죄의 대가로 처형되었습니다(15절). 다윗은 개인적 측면에서 자신의 정적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뻐하기는커녕 민족적 측면에서 일국의 지도자가 서거한 것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감히 하나님께 기쁨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댄 아말렉 소년의 죄악을 응징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호하게 대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개인의 감정을 떠나 진실로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소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사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²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서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자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 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본문 사무엘하 1:17~27 찬송가 354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의 왕이자 다윗의 장인인 사울과 이스라엘의 왕자이며 처남이고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지은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며 안타까워한 다윗의 진심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히브리 시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애가(哀歌)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 민족에 남긴 중요한 공적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영원히 헌정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노래는 다윗의 성품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다윗이 자기를 향해 제기된 사울의 모든 악한 공격을 딛고 일어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17~19, 25~27절). 그리고 다음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미덕에 대한 칭송입니다(20~24절). 또한 이 노래의 주제적 측면에서 세 번 반복되는 감정이 잔뜩 실린 어구인 '오호라 두 용사가 었드러졌도다'(19, 25, 27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그 민족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영광(19절), 전쟁의 영웅(22절),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23절)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활의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는 아니기 때문에 시편에 포함되지 않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18절). 그렇지만 본 애가는 미래의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다윗의 고상한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오늘 하루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소서.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었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 보아 산들과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려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이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었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며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삼히 아름다운 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었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본문 사무엘하 2:1~11 찬송가 10장

»» 본문 해설

다윗은 결코 자신의 때를 스스로 분별하여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사를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1절). 하나님은 다윗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였고, 다윗과 식솔들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유서 깊은 도시였으며, 유다 지파에 속했던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국경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을 기르는 데도 매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4절). 다윗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곧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단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왕으로서 길르앗 야베스의 선한 일(사울의 장례)을 갚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6절). 그는 진심으로 그들이 사울에게 베푼 선의와 사울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준 것을 칭찬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은 군사령관 아브넬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9절). 사울은 죽었지만 옛 정권의 잔재는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이스보셋이 통치한 기간이 2년이었고(10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한 것을 감안하면, 사울이 죽은 후 처음 5년은 아브넬이 사울 집안을 계속 지지했던 북쪽 지파들 속에서 일종의 군정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 삼은 것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욕심에게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다른 대상을 왕으로 삼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1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
 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2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
 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 유다 사
 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
 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이니이
 다 하매 5 다윗이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
 을지어다 6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
 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 이제 너희는 손을 감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
 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8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
 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10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사십 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칠 년 육 개월이
 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 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본문 사무엘하 2:12~32 찬송가 358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 왕을 섬기게 되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 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아브넬이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 못가에 나왔고, 반대편에는 다윗의 장군 요압과 군사들이 나와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땅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접경 지역으로 각자 다른 왕으로 섬기는 두 세력이 이곳에서 대치해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습니다(12절). 비참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왕을 세워 동족간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브넬은 전면전을 피하려는 의도에서였는지 군사 몇 명만 뽑아서 싸움을 결정짓자고 제안했습니다(14절). 그리고 각 진영에서 12명씩 대표가 되어 전투했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16절)는 말씀은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치열한 싸움이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24명의 대표 전사들이 모두 옆구리에 칼을 맞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만 되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전면전이 되었고 결국 아브넬은 패했습니다. 사상자가 있었지만 다윗의 세력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른 왕을 세운 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요압은 안타깝게도 다윗의 신복 19명과 동생 아사헬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죽인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동족, 곧 형제이기에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뼈아픈 대가를 감수하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사헬이 조상 묘에 장사된 것은 악한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싸운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명백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브넬의 정치적 야망으로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불순종하는 자, 형제 사랑을 깬 자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백한 모습인 교회는 의와 형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나의 야망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형제 사랑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소서.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
 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 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나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
 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헐갓 핫수림이
 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 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
 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 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
 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나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
 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
 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지게 할 까닭이 무
 었이나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
 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
 지라 곧 그 곳에 엎드려져 죽으며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
 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 기아
 맞은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나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
 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
 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
 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
 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
 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
 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
 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열이홉 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니 *다윗의 신복들
 이 베나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삼백육십 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사
 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본문 사무엘하 3:1~11 찬송가 290장

》》 본문 해설

1절에서 기브온 전투 이래 역사의 특성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점 흥왕해 가는 다윗가와는 대조적으로 사울가는 점점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사울가의 몰락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가의 번영의 간접적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점점 통일왕국의 왕위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는 동안 낳은 여섯 아들의 명단을 소상하게 밝힘으로서 헤브론에서 그의 가족이 번창한 사실을 드러내어 아브넬과 이스보셋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사울의 집과의 오랜 대립과 긴장 상태에서도 다윗의 집이 번성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 상태가 계속 중일 때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자신의 권세를 키워 나갔습니다(6절). 이스보셋은 군부 세력의 실세인 아브넬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이 권세를 잡아 가는 상황은 온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에게 매우 불편한 것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아브넬이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통간한 사건으로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며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7절). 이를 매우 분히 여긴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겁에 질려 감히 대꾸도 못할 정도로(11절) 매섭게 몰아치며 반발을 하였습니다(8~10절). 이 일로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분쟁으로 몰락해 가는 사울의 집의 모습이 한층 더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막으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그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쇠하고 망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미 무너진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언제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1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
 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2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3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
 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4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5 여섯
 째는 이드르압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
 은 자들이더라 6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
 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7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
 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
 하였느냐 하니 8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
 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
 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9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
 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10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11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
 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본문 사무엘하 3:12~21 찬송가 327장

>>> 본문 해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위협하며 맹세한 것을 즉각 실행했습니다. 먼저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도록 돕겠다고 정치적인 협상을 했습니다(12절).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 할 때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로서 그의 왕위를 잇는 것이 정당함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다윗의 왕권을 든든히 하는데 필요한 절차였습니다(13~16절). 그렇지 않아도 다윗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그를 왕으로 받들기를 건의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나민 사람들을 설득하여 다윗의 왕권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든 다음(17~18절), 아브넬은 부하 20인을 거느리고 직접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19~21절). 아브넬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에게 돌아가기로 한 것은, 이제라도 돌아가서 다윗의 왕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대로 역사 진행의 편에 서야겠다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약해진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 붙음으로써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고, 그 밑에서 다시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또 다른 사사로운 야심의 발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브넬의 뜻과 계획은 모두 성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아브넬을 사용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하심입니다. 잠깐은 악인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모든 꾀를 흠으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승리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내 삶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①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②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③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④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⑤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⑥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⑦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⑧아브넬이 부하 이십 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⑨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본문 사무엘하 3:22~30 찬송가 321장

>>> 본문 해설

다윗과 아브넬 사이의 언약이 뒤흔들리고, 아브넬이 다윗의 선대를 받아 돌아갔습니다. 원정에서 뒤늦게 헤브론으로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의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다윗의 군장이요 조카인 요압은 다윗 왕에게 나아가 아브넬을 선대한 것에 대하여 항의했습니다(24절). 그는 악의에 차서 다윗 왕에게 아브넬을 악담한 후(25절),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 왕 몰래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했습니다(26절). 교활한 속임수로 그를 성문으로 데리고 들어간 요압은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27절).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27, 30절) 요압이 아브넬을 그렇게 죽인 것은 아브넬이 기브온 전투에서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데(2:18~23) 대한 원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통일 왕국 후 자신의 위치가 아브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을 염려한 정치적 야망이 더 깊이 작용했을 것이란 짐작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자신과 자신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고 말했습니다(28절). 그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전혀 거리낌이 없음을 고백하며 요압의 집에 저주를 선포했습니다(29절). 요압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속적인 정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하고 아사헬의 피를 흘리게 한 아브넬 또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악인이 교회를 휘방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기다리며 합당한 절차를 따라 악인을 치리하며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말씀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겉으로는 연약해 보여도 심판하시는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교회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명히 드러나게 하소서.

28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
 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29 요
 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30 요압
 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
 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31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
 이다 하고 32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
 더니 시라 우물 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33 아브넬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찢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
 음이더라 34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의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35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
 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니라 36 요압
 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
 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본문 사무엘하 3:31~39 찬송가 252장

>>> 본문 해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31절). 그리고 자신도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했고 그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32절). 또한 아브넬을 위해 친히 애가를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33절). 다윗은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과 함께 그를 장사지내 주었습니다. 아브넬을 위해 슬퍼하며 정성껏 장례식을 마쳤지만 다윗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 무참하게 아브넬을 죽인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은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명령과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39절).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불행을 당한 지체를 위해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주위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 힘들어 하는 형제들은 없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기꺼이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 기도 제목

형제의 유익을 구하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4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5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6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차꼬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7 석양에 못 백성이 나아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8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9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나라 10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11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악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본문 사무엘하 4:1~12 찬송가 516장

>>> 본문 해설

4장은 사무엘하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서 아브넬의 죽음(1절), 이스보셋의 죽음(2~7절), 바아나와 레갑의 죽음(8~12절)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장의 서두인 1절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스보셋의 암살범인 바아나와 레갑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바아나와 레갑은 이스보셋 휘하의 군 지휘관들로서, 그들은 형제 지간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온 족속의 성읍(수 9:17) 브에롯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12절까지 계속되지만, 4절에 르비보셋의 이야기가 삽입됩니다. 이는 사무엘서의 저자가 잠시 후 9장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것을 미리 암시하기 위한 의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7절은 바아나와 레갑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스보셋을 죽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8~12절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찾아온 그들을 다윗이 어떻게 책망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형하였는지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이스보셋의 장례를 치른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통 죽음을 주제로 다루는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죄악이 심판받고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 살아서는 안되고, 당장은 손해가 있더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 기도 제목

세상 나라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3.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²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³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별이 뜰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말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⁴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찌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⁵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굴라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값으로 삼았거든’⁶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본문 사무엘하 5:1~12 찬송가 430장

》》 본문 해설

북쪽 지파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군대장관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당하고 이스보셋 왕마저 레갑과 바아나 형제에게 암살당하자 지도력 부재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에게 나아와 왕이 되어주기를 청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인정했습니다(2절).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습니다(3절). 그는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온 세상 또한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할 때에 참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과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족속의 후손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수 15:63; 삿 1:21). 그들이 머물렀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속담에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들만으로도 성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6절). 그러나 다윗은 그곳을 비교적 쉽게 빼앗았는데, 그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10절). 이렇게 강성하여지자 두로 왕 히람은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한 궁궐을 짓게 하였습니다(11절).

이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더욱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 세상이 주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 기도 제목

세상속에 살지만 세상의 통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맛보게 하옵소서.

¹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²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³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⁴ 다윗이 나이가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니 ⁵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⁶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⁷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⁸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⁹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¹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¹¹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¹²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본문 사무엘하 5:13~25 찬송가 615장

>>> 본문 해설

다윗은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린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13~16절). 다윗이 낳은 아들들의 수가 많은 것과 특히 그 안에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 나라가 갈수록 강해지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의 즉위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리자, 대적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17절).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랜 대적입니다.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8절)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적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19절).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그들을 반드시 넘길 것을 약속하시며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싸울 방법까지도 세밀하게 지도하시면서 다윗에게 두 번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19~25절). 특별히 여호와께서 물을 흠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흠으셨다는 이름의 '바알브라심'이라는 지명은 다윗의 신앙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보여주듯이 성도는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힘입어 담대히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모든 권세를 무력화하셨기에 성도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순간순간 싸움의 여부를 하나님께 물음으로 승리를 맛보았듯이,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큰 난관과 강한 대적조차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 기도 제목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10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11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12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벅과 아비아와 13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다라 14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5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6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7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흠을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흠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18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19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0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으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수물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1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2 이에 다윗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옷사를 치시므로

본문 사무엘하 6:1~11 찬송가 251장

>>> 본문 해설

법궤, 언약궤, 여호와와 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하나님의 궤는 사무엘상에서 계속 언급되다가, 사무엘하에 와서는 간헐적으로 언급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 오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삼만 명을 뽑아 준비했습니다(1절).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내려가서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2절). 옷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끌었으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러가지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연주했습니다(5절).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실 수 없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므로 옷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6절).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어긴 옷사에게 진노하사 그를 치셨으며, 그곳에서 옷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7절).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옷사를 치시는 여호와를 보면서 “여호와와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이 두렵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불의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죄인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엡 2:5).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뜻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됨의 모습입니다.

>>> 기도 제목

내 안에 옷사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1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삼만 명을 다시 모으고 2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들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6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사가 잘못 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8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그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 다윗이 여호와와 그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 여호와와 그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벧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그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본문 사무엘하 6:12~23 찬송가 428장

>>> 본문 해설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궤로 말미암아 오벰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 성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12절). 그 길에 다윗은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으며(13절), 그와 함께 했던 온 이스라엘 족속들도 즐거이 환호하며 궤를 모셔왔습니다(14절). 성도는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오벰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복을 주셨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기쁨을 맛보고 표현했지만, 다윗의 아내 미갈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와 그의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습니다(16절). 다윗은 여호와와 그의 궤를 위해 장막을 치고 미리 준비한 자리에 궤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린 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잔치음식을 모두 나눠 먹었습니다(19절).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사 큰 기쁨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을 이땅에서도 성도들이 맛보며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20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벧전 5:5). 겸손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십니다.

>>>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죄사함의 은총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하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벵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벵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와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본문 사무엘하 7:1~17 찬송가 80장

>>> 본문 해설

사무엘하 7장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궤를 위한 집을 짓고 싶어 하는 다윗의 마음(1~7절), 둘째,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고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8~17절), 셋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18~29절)입니다. 본문은 세 단락 중 앞의 두 단락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가 안정되어가자 선지자 나단을 불러 하나님의 궤를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2절). 이에 나단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하라고 대답했습니다(3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단의 대답과는 다르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이후 이제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명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4~7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8~11절).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며, 그의 집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2~17절).

다윗 언약은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심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기간 속에서 살고 있으며, 매일의 삶이 영적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끝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 기도 제목

영적전쟁의 기간동안 이미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³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여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⁵ 그 밤에 여호와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⁶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⁷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⁸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⁹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¹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으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¹¹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¹²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¹³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¹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¹⁵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¹⁶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¹⁷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다 하라¹⁸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어

본문 사무엘하 7:18~29 찬송가 446장

» 본문 해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여호와와의 약속을 전해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푸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으로도 놀라운데 자신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 즉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셨음에 황송해 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자신에게 알게 하셨음을 감사했습니다(18~21절).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엡 1:8~14).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22절).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자기백성을 구속하신 그 큰 일을 행하셨음에 감사했으며(23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에 감사하였습니다(24절). 다윗이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백성 삼아 주셨음을 기도한 것처럼, 올바른 기도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것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며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와의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 자신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29절). 이처럼 다윗은 주님과와의 언약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그 뜻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 기도 제목

다윗과 같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 아니라 *주 여호와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
 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 주 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
 이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
 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
 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는 이
 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
 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
 음이 생겼나이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
 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본문 사무엘하 8:1~18 찬송가 352장

>>> 본문 해설

다윗왕국의 확장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8장은 먼저는 전쟁을 통한 다윗 왕국의 확장을 다루고 있으며(1~14절), 이어서 다윗통치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다윗의 관료들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5~18절). 먼저 언약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고(1절), 이어서 모압을 쳐서 이겨,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2절).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을 침과 동시에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동서 남북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8절).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에게 늘 승리를 가져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감당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셨음을 부활로 만방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분의 승리를 삶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리며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께로 돌립니다(9~12절). 여호와께 이 모든 것을 드림은 승리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 분임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15절).

이처럼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듯 하나 영적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입니다. “그러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얻게 된 모든 것의 일부 혹은 전부를 드림으로, 또한 승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성도로서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 그에게서 마병 천칠백 명과 보병 이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일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라 *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대에서 매우 많은 뇌물을 빼앗으니라 *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온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아는 서기관이 되고 *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본문 사무엘하 9:1~13 찬송가 305장

>>> 본문 해설

다윗이 대내외적으로 왕권을 안정시킨 후 곧바로 한 일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승리감에 도취되어 언약을 잊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들 가운데 다리를 저는 아들이 살아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았습니다(4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성도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다른 성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언약의 공동체이며, 모든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도의 고난과 기쁨은 교회 전체의 고난과 기쁨이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마길의 집에 있는 므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돌려줄 것이며,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해 므비보셋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자기자식처럼 대했습니다. 므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대우했던 것입니다(11절).

성도는 늘 하나님께 복음과 사랑에 대한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보살피고 선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눅 10:27).

>>> 기도 제목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1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 사울의 집에는 중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4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5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예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9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11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2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2월 1일 월요일

1 Samuel 25:23~35

- 23 When Abigail saw David, she quickly got off her donkey and bowed down before David with her face to the ground.
- 24 She fell at his feet and said: "My lord, let the blame be on me alone. Please let your servant speak to you; hear what your servant has to say.
- 25 May my lord pay no attention to that wicked man Nabal. He is just like his name-- his name is Fool, and folly goes with him. But as for me, your servant, I did not see the men my master sent.
- 26 "Now since the LORD has kept you, my master, from bloodshed and from avenging yourself with your own hands,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may your enemies and all who intend to harm my master be like Nabal.
- 27 And let this gift, which your servant has brought to my master, be given to the men who follow you.
- 28 Please forgive your servant's offense, for the LORD will certainly make a lasting dynasty for my master, because he fights the LORD's battles. Let no wrongdoing be found in you as long as you live.
- 29 Even though someone is pursuing you to take your life, the life of my master will be bound securely in the bundle of the living by the LORD your God. But the lives of your enemies he will hurl away as from the pocket of a sling.
- 30 When the LORD has done for my master every good thing he promised concerning him and has appointed him leader over Israel,
- 31 my master will not have on his conscience the staggering burden of needless bloodshed or of having avenged himself. And when the LORD has brought my master success, remember your servant."
- 32 David said to Abigail,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has sent you today to meet me.
- 33 May you be blessed for your good judgment and for keeping me from bloodshed this day and from avenging myself with my own hands.
- 34 Otherwise, as surely as the LORD, the God of Israel, lives, who has kept me from

harming you, if you had not come quickly to meet me, not one male belonging to Nabal would have been left alive by daybreak."

- 35 Then David accepted from her hand what she had brought him and said, "Go home in peace. I have heard your words and granted your request."

2월 2일 화요일

1 Samuel 25:36~44

- 36 When Abigail went to Nabal, he was in the house holding a banquet like that of a king. He was in high spirits and very drunk. So she told him nothing until daybreak.
- 37 Then in the morning, when Nabal was sober, his wife told him all these things, and his heart failed him and he became like a stone.
- 38 About ten days later, the LORD struck Nabal and he died.
- 39 When David heard that Nabal was dead, he said, "Praise be to the LORD, who has upheld my cause against Nabal for treating me with contempt. He has kept his servant from doing wrong and has brought Nabal's wrongdoing down on his own head." Then David sent word to Abigail, asking her to become his wife.
- 40 His servants went to Carmel and said to Abigail, "David has sent us to you to take you to become his wife."
- 41 She bowed down with her face to the ground and said, "Here is your maidservant, ready to serve you and wash the feet of my master's servants."
- 42 Abigail quickly got on a donkey and, attended by her five maids, went with David's messengers and became his wife.
- 43 David had also married Ahinoam of Jezreel, and they both were his wives.
- 44 But Saul had given his daughter Michal, David's wife, to Paltiel son of Laish, who was from Gallim.

2월 3일 수요일

1 Samuel 26:1~12

- 1 The Ziphites went to Saul at Gibeath and said, "Is not David hiding on the hill of Hakilah, which faces Jeshimon?"
- 2 So Saul went down to the Desert of Ziph,

with his three thousand chosen men of Israel, to search there for David.

- 3 Saul made his camp beside the road on the hill of Hakilah facing Jeshimon, but David stayed in the desert. When he saw that Saul had followed him there,
- 4 he sent out scouts and learned that Saul had definitely arrived.
- 5 Then David set out and went to the place where Saul had camped. He saw where Saul and Abner son of Ner, the commander of the army, had lain down. Saul was lying inside the camp, with the army encamped around him.
- 6 David then asked Ahimelech the Hittite and Abishai son of Zeruiah, Joab's brother, "Who will go down into the camp with me to Saul?" "I'll go with you," said Abishai.
- 7 So David and Abishai went to the army by night, and there was Saul, lying asleep inside the camp with his spear stuck in the ground near his head. Abner and the soldiers were lying around him.
- 8 Abishai said to David, "Today God has delivered your enemy into your hands. Now let me pin him to the ground with one thrust of my spear; I won't strike him twice."
- 9 But David said to Abishai, "Don't destroy him! Who can lay a hand on the LORD's anointed and be guiltless?"
- 10 As surely as the LORD lives," he said, "the LORD himself will strike him; either his time will come and he will die, or he will go into battle and perish.
- 11 But the LORD forbid that I should lay a hand on the LORD's anointed. Now get the spear and water jug that are near his head, and let's go."
- 12 So David took the spear and water jug near Saul's head, and they left. No one saw or knew about it, nor did anyone wake up. They were all sleeping, because the LORD had put them into a deep sleep.

2월 4일 목요일

1 Samuel 26:13~25

- 13 Then David crossed over to the other side and stood on top of the hill some distance away; there was a wide space between them.
- 14 He called out to the army and to Abner son

of Ner, "Aren't you going to answer me, Abner?" Abner replied, "Who are you who calls to the king?"

- 15 David said, "You're a man, aren't you? And who is like you in Israel? Why didn't you guard your lord the king? Someone came to destroy your lord the king.
- 16 What you have done is not goo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you and your men deserve to die, because you did not guard your master, the LORD's anointed. Look around you. Where are the king's spear and water jug that were near his head?"
- 17 Saul recognized David's voice and said, "Is that your voice, David my son?" David replied, "Yes it is, my lord the king."
- 18 And he added, "Why is my lord pursuing his servant? What have I done, and what wrong am I guilty of?"
- 19 Now let my lord the king listen to his servant's words. If the LORD has incited you against me, then may he accept an offering. If, however, men have done it, may they be cursed before the LORD! They have now driven me from my share in the LORD's inheritance and have said, 'Go, serve other gods.'
- 20 Now do not let my blood fall to the ground far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The king of Israel has come out to look for a flea--as one hunts a partridge in the mountains."
- 21 Then Saul said, "I have sinned. Come back, David my son. Because you considered my life precious today, I will not try to harm you again. Surely I have acted like a fool and have erred greatly."
- 22 "Here is the king's spear," David answered. "Let one of your young men come over and get it."
- 23 The LORD rewards every man for his righteousness and faithfulness. The LORD delivered you into my hands today, but I would not lay a hand on the LORD's anointed.
- 24 As surely as I valued your life today, so may the LORD value my life and deliver me from all trouble."
- 25 Then Saul said to David, "May you be blessed, my son David; you will do great things and surely triumph." So David went on his way, and Saul returned home.

2월 5일 금요일

1 Samuel 27:1~12

- 1 But David thought to himself, "One of these days I will be destroyed by the hand of Saul. The best thing I can do is to escape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Then Saul will give up searching for me anywhere in Israel, and I will slip out of his hand."
- 2 So David and the six hundred men with him left and went over to Achish son of Maach king of Gath.
- 3 David and his men settled in Gath with Achish. Each man had his family with him, and David had his two wives: Ahinoam of Jezreel and Abigail of Carmel, the widow of Nabal.
- 4 When Saul was told that David had fled to Gath, he no longer searched for him.
- 5 Then David said to Achish,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let a place be assigned to me in one of the country towns, that I may live there. Why should your servant live in the royal city with you?"
- 6 So on that day Achish gave him Ziklag, and it has belonged to the kings of Judah ever since.
- 7 David lived in Philistine territory a year and four months.
- 8 Now David and his men went up and raided the Geshurites, the Girzites and the Amalekites. (From ancient times these peoples had lived in the land extending to Shur and Egypt.)
- 9 Whenever David attacked an area, he did not leave a man or woman alive, but took sheep and cattle, donkeys and camels, and clothes. Then he returned to Achish.
- 10 When Achish asked, "Where did you go raiding today?" David would say, "Against the Negev of Judah" or "Against the Negev of Jerahmeel" or "Against the Negev of the Kenites."
- 11 He did not leave a man or woman alive to be brought to Gath, for he thought, "They might inform on us and say, 'This is what David did.' " And such was his practice as long as he lived in Philistine territory.
- 12 Achish trusted David and said to himself, "He has become so odious to his people, the Israelites, that he will be my servant forever."

2월 6일 토요일

1 Samuel 28:1~14

- 1 In those days the Philistines gathered their forces to fight against Israel. Achish said to David, "You must understand that you and your men will accompany me in the army."
- 2 David said, "Then you will see for yourself what your servant can do." Achish replied, "Very well, I will make you my bodyguard for life."
- 3 Now Samuel was dead, and all Israel had mourned for him and buried him in his own town of Ramah. Saul had expelled the mediums and spiritists from the land.
- 4 The Philistines assembled and came and set up camp at Shunem, while Saul gathered all the Israelites and set up camp at Gilboa.
- 5 When Saul saw the Philistine army, he was afraid; terror filled his heart.
- 6 He inquired of the LORD, but the LORD did not answer him by dreams or Urim or prophets.
- 7 Saul then said to his attendants, "Find me a woman who is a medium, so I may go and inquire of her." "There is one in Endor," they said.
- 8 So Saul disguised himself, putting on other clothes, and at night he and two men went to the woman. "Consult a spirit for me," he said, "and bring up for me the one I name."
- 9 But the woman said to him, "Surely you know what Saul has done. He has cut off the mediums and spiritists from the land. Why have you set a trap for my life to bring about my death?"
- 10 Saul swore to her by the LOR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you will not be punished for this."
- 11 Then the woman asked, "Whom shall I bring up for you?" "Bring up Samuel," he said.
- 12 When the woman saw Samuel, she cried out at the top of her voice and said to Saul, "Why have you deceived me? You are Saul!"
- 13 The king said to her, "Don't be afraid. What do you see?" The woman said, "I see a spirit coming up out of the ground."
- 14 "What does he look like?" he asked. "An old man wearing a robe is coming up," she said. Then Saul knew it was Samuel, and he bowed down and prostrated himself with his face to the ground.

2월 7일 주일

1 Samuel 28:15~25

- 15 Samuel said to Saul, "Why have you disturbed me by bringing me up?" "I am in great distress," Saul said. "The Philistines are fighting against me, and God has turned away from me. He no longer answers me, either by prophets or by dreams. So I have called on you to tell me what to do."
- 16 Samuel said, "Why do you consult me, now that the LORD has turned away from you and become your enemy?"
- 17 The LORD has done what he predicted through me. The LORD has torn the kingdom out of your hands and given it to one of your neighbors--to David.
- 18 Because you did not obey the LORD or carry out his fierce wrath against the Amalekites, the LORD has done this to you today.
- 19 The LORD will hand over both Israel and you to the Philistines, and tomorrow you and your sons will be with me. The LORD will also hand over the army of Israel to the Philistines."
- 20 Immediately Saul fell full length on the ground, filled with fear because of Samuel's words. His strength was gone, for he had eaten nothing all that day and night.
- 21 When the woman came to Saul and saw that he was greatly shaken, she said, "Look, your maidservant has obeyed you. I took my life in my hands and did what you told me to do."
- 22 Now please listen to your servant and let me give you some food so you may eat and have the strength to go on your way."
- 23 He refused and said, "I will not eat." But his men joined the woman in urging him, and he listened to them. He got up from the ground and sat on the couch.
- 24 The woman had a fattened calf at the house, which she butchered at once. She took some flour, kneaded it and baked bread without yeast.
- 25 Then she set it before Saul and his men, and they ate. That same night they got up and left.

2월 8일 월요일

1 Samuel 29:1~11

- 1 The Philistines gathered all their forces at Aphek, and Israel camped by the spring in Jezreel.
- 2 As the Philistine rulers marched with their units of hundreds and thousands, David and his men were marching at the rear with Achish.
- 3 The commanders of the Philistines asked, "What about these Hebrews?" Achish replied, "Is this not David, who was an officer of Saul king of Israel? He has already been with me for over a year, and from the day he left Saul until now, I have found no fault in him."
- 4 But the Philistine commanders were angry with him and said, "Send the man back, that he may return to the place you assigned him. He must not go with us into battle, or he will turn against us during the fighting. How better could he regain his master's favor than by taking the heads of our own men?"
- 5 Isn't this the David they sang about in their dances: " 'Saul has slain his thousands, and David his tens of thousands?'"
- 6 So Achish called David and said to him, "As surely as the LORD lives, you have been reliable, and I would be pleased to have you serve with me in the army. From the day you came to me until now, I have found no fault in you, but the rulers don't approve of you."
- 7 Turn back and go in peace; do nothing to displease the Philistine rulers."
- 8 "But what have I done?" asked David. "What have you found against your servant from the day I came to you until now? Why can't I go and fight against the enemies of my lord the king?"
- 9 Achish answered, "I know that you have been as pleasing in my eyes as an angel of God; nevertheless, the Philistine commanders have said, 'He must not go up with us into battle.'"
- 10 Now get up early, along with your master's servants who have come with you, and leave in the morning as soon as it is light."
- 11 So David and his men got up early in the morning to go back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and the Philistines went up to Jezreel.

2월 9일 화요일

1 Samuel 30:1~10

- 1 David and his men reached Ziklag on the third day. Now the Amalekites had raided the Negev and Ziklag. They had attacked Ziklag and burned it,
- 2 and had taken captive the women and all who were in it, both young and old. They killed none of them, but carried them off as they went on their way.
- 3 When David and his men came to Ziklag, they found it destroyed by fire and their wives and sons and daughters taken captive.
- 4 So David and his men wept aloud until they had no strength left to weep.
- 5 David's two wives had been captured-- Ahinoam of Jezreel and Abigail, the widow of Nabal of Carmel.
- 6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because the men were talking of stoning him; each one was bitter in spirit because of his sons and daughters.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 7 Then David said to Abiathar the priest, the son of Ahimelech, "Bring me the ephod." Abiathar brought it to him,
- 8 and David inquired of the LORD, "Shall I pursue this raiding party? Will I overtake them?" "Pursue them," he answered. "You will certainly overtake them and succeed in the rescue."
- 9 David and the six hundred men with him came to the Besor Ravine, where some stayed behind,
- 10 for two hundred men were too exhausted to cross the ravine. But David and four hundred men continued the pursuit.

2월 10일 수요일

1 Samuel 30:11~20

- 11 They found an Egyptian in a field and brought him to David. They gave him water to drink and food to eat--
- 12 part of a cake of pressed figs and two cakes of raisins. He ate and was revived, for he had not eaten any food or drunk any water for three days and three nights.
- 13 David asked him, "To whom do you belong, and where do you come from?" He said, "I am an Egyptian, the slave of an Amalekite.

My master abandoned me when I became ill three days ago.

- 14 We raided the Negev of the Kerethites and the territory belonging to Judah and the Negev of Caleb. And we burned Ziklag."
- 15 David asked him, "Can you lead me down to this raiding party?" He answered, "Swear to me before God that you will not kill me or hand me over to my master, and I will take you down to them."
- 16 He led David down, and there they were, scattered over the countryside, eating, drinking and reveling because of the great amount of plunder they had taken from the land of the Philistines and from Judah.
- 17 David fought them from dusk until the evening of the next day, and none of them got away, except four hundred young men who rode off on camels and fled.
- 18 David recovered everything the Amalekites had taken, including his two wives.
- 19 Nothing was missing: young or old, boy or girl, plunder or anything else they had taken. David brought everything back.
- 20 He took all the flocks and herds, and his men drove them ahead of the other livestock, saying, "This is David's plunder."

2월 11일 목요일

1 Samuel 30:21~31

- 21 Then David came to the two hundred men who had been too exhausted to follow him and who were left behind at the Besor Ravine. They came out to meet David and the people with him. As David and his men approached, he greeted them.
- 22 But all the evil men and troublemakers among David's followers said, "Because they did not go out with us, we will not share with them the plunder we recovered. However, each man may take his wife and children and go."
- 23 David replied, "No, my brothers, you must not do that with what the LORD has given us. He has protected us and handed over to us the forces that came against us.
- 24 Who will listen to what you say? The share of the man who stayed with the supplies is to be the same as that of him who went down to the battle. All will share alike."
- 25 David made this a statute and ordinance for

Israel from that day to this.

- 26 When David arrived in Ziklag, he sent some of the plunder to the elders of Judah, who were his friends, saying, "Here is a present for you from the plunder of the LORD's enemies."
27 He sent it to those who were in Bethel, Ramoth Negev and Jattir;
28 to those in Aroer, Siphmoth, Eshtemoa
29 and Racal; to those in the towns of the Jerahmeelites and the Kenites;
30 to those in Hormah, Bor Ashan, Athach
31 and Hebron; and to those in all the other places where David and his men had roamed.

proclaim the news in the temple of their idols and among their people.

- 10 They put his armor in the temple of the Ashtoreths and fastened his body to the wall of Beth Shan.
11 When the people of Jabesh Gilead heard of what the Philistines had done to Saul,
12 all their valiant men journeyed through the night to Beth Shan. They took down the bodies of Saul and his sons from the wall of Beth Shan and went to Jabesh, where they burned them.
13 Then they took their bones and buried them under a tamarisk tree at Jabesh, and they fasted seven days.

2월 12일 금요일

1 Samuel 31:1~13

- 1 Now the Philistines fought against Israel; the Israelites fled before them, and many fell slain on Mount Gilboa.
2 The Philistines pressed hard after Saul and his sons, and they killed his sons Jonathan, Abinadab and Malki-Shua.
3 The fighting grew fierce around Saul, and when the archers overtook him, they wounded him critically.
4 Saul said to his armor-bearer, "Draw your sword and run me through, or these uncircumcised fellows will come and run me through and abuse me." But his armor-bearer was terrified and would not do it; so Saul took his own sword and fell on it.
5 When the armor-bearer saw that Saul was dead, he too fell on his sword and died with him.
6 So Saul and his three sons and his armor-bearer and all his men died together that same day.
7 When the Israelites along the valley and those across the Jordan saw that the Israelite army had fled and that Saul and his sons had died, they abandoned their towns and fled. And the Philistines came and occupied them.
8 The next day, when the Philistines came to strip the dead, they found Saul and his three sons fallen on Mount Gilboa.
9 They cut off his head and stripped off his armor, and they sent messengers throughout the land of the Philistines to

2월 13일 토요일

2 Samuel 1:1~16

- 1 After the death of Saul, David returned from defeating the Amalekites and stayed in Ziklag two days.
2 On the third day a man arrived from Saul's camp, with his clothes torn and with dust on his head. When he came to David, he fell to the ground to pay him honor.
3 "Where have you come from?" David asked him. He answered, "I have escaped from the Israelite camp."
4 "What happened?" David asked. "Tell me." He said, "The men fled from the battle. Many of them fell and died. And Saul and his son Jonathan are dead."
5 Then David said to the young man who brought him the report, "How do you know that Saul and his son Jonathan are dead?"
6 "I happened to be on Mount Gilboa," the young man said, "and there was Saul, leaning on his spear, with the chariots and riders almost upon him.
7 When he turned around and saw me, he called out to me, and I said, 'What can I do?'
8 'He asked me, 'Who are you?' ' 'An Amalekite,' I answered.
9 'Then he said to me, 'Stand over me and kill me! I am in the throes of death, but I'm still alive.'
10 'So I stood over him and killed him, because I knew that after he had fallen he could not survive. And I took the crown that was on his head and the band on his arm and have brought them here to my lord."

- 11 Then David and all the men with him took hold of their clothes and tore them.
- 12 They mourned and wept and fasted till evening for Saul and his son Jonathan, and for the army of the LORD and the house of Israel, because they had fallen by the sword.
- 13 David said to the young man who brought him the report, "Where are you from?" "I am the son of an alien, an Amalekite," he answered.
- 14 David asked him, "Why were you not afraid to lift your hand to destroy the LORD's anointed?"
- 15 Then David called one of his men and said, "Go, strike him down!" So he struck him down, and he died.
- 16 For David had said to him, "Your blood be on your own head. Your own mouth testified against you when you said, 'I killed the LORD's anointed.'"

2월 14일 주일

2 Samuel 1:17~27

- 17 David took up this lament concerning Saul and his son Jonathan,
- 18 and ordered that the men of Judah be taught this lament of the bow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Jashar):
- 19 "Your glory, O Israel, lies slain on your heights. How the mighty have fallen!
- 20 "Tell it not in Gath, proclaim it not in the streets of Ashkelon, lest the daughters of the Philistines be glad, lest the daughters of the uncircumcised rejoice.
- 21 "O mountains of Gilboa, may you have neither dew nor rain, nor fields that yield offerings of grain. For there the shield of the mighty was defiled, the shield of Saul--no longer rubbed with oil.
- 22 From the blood of the slain, from the flesh of the mighty, the bow of Jonathan did not turn back, the sword of Saul did not return unsatisfied.
- 23 "Saul and Jonathan-- in life they were loved and gracious, and in death they were not parted. They were swifter than eagles, they were stronger than lions.
- 24 "O daughters of Israel, weep for Saul, who clothed you in scarlet and finery, who adorned your garments with ornaments of gold.
- 25 "How the mighty have fallen in battle! Jonathan lies slain on your heights.
- 26 I grieve for you, Jonathan my brother; you were very dear to me. Your love for me was wonderful, more wonderful than that of women.
- 27 "How the mighty have fallen! The weapons of war have perished!"

2월 15일 월요일

2 Samuel 2:1~11

- 1 In the course of time, David inquired of the LORD. "Shall I go up to one of the towns of Judah?" he asked. The LORD said, "Go up." David asked, "Where shall I go?" "To Hebron," the LORD answered.
- 2 So David went up there with his two wives, Ahinoam of Jezreel and Abigail, the widow of Nabal of Carmel.
- 3 David also took the men who were with him, each with his family, and they settled in Hebron and its towns.
- 4 Then the men of Judah came to Hebron and there they anointed David king over the house of Judah. When David was told that it was the men of Jabesh Gilead who had buried Saul,
- 5 he sent messengers to the men of Jabesh Gilead to say to them, "The LORD bless you for showing this kindness to Saul your master by burying him.
- 6 May the LORD now show you kindness and faithfulness, and I too will show you the same favor because you have done this.
- 7 Now then, be strong and brave, for Saul your master is dead, and the house of Judah has anointed me king over them."
- 8 Meanwhile, Abner son of Ner, the commander of Saul's army, had taken Ish-Bosheth son of Saul and brought him over to Mahanaim.
- 9 He made him king over Gilead, Ashuri and Jezreel, and also over Ephraim, Benjamin and all Israel.
- 10 Ish-Bosheth son of Saul was forty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over Israel, and he reigned two years. The house of Judah, however, followed David.
- 11 The length of time David was king in Hebron over the house of Judah was seven years

and six months.

2월 16일 화요일

2 Samuel 2:12~32

12 Abner son of Ner, together with the men of Ish-Bosheth son of Saul, left Mahanaim and went to Gibeon.

13 Joab son of Zeruiah and David's men went out and met them at the pool of Gibeon. One group sat down on one side of the pool and one group on the other side.

14 Then Abner said to Joab, "Let's have some of the young men get up and fight hand to hand in front of us." "All right, let them do it," Joab said.

15 So they stood up and were counted off--twelve men for Benjamin and Ish-Bosheth son of Saul, and twelve for David.

16 Then each man grabbed his opponent by the head and thrust his dagger into his opponent's side, and they fell down together. So that place in Gibeon was called Helkath Hazzurim.

17 The battle that day was very fierce, and Abner and the men of Israel were defeated by David's men.

18 The three sons of Zeruiah were there: Joab, Abishai and Asahel. Now Asahel was as fleet-footed as a wild gazelle.

19 He chased Abner, turning neither to the right nor to the left as he pursued him.

20 Abner looked behind him and asked, "Is that you, Asahel?" "It is," he answered.

21 Then Abner said to him, "Turn aside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ake on one of the young men and strip him of his weapons." But Asahel would not stop chasing him.

22 Again Abner warned Asahel, "Stop chasing me! Why should I strike you down? How could I look your brother Joab in the face?"

23 But Asahel refused to give up the pursuit; so Abner thrust the butt of his spear into Asahel's stomach, and the spear came out through his back. He fell there and died on the spot. And every man stopped when he came to the place where Asahel had fallen and died.

24 But Joab and Abishai pursued Abner, and as the sun was setting, they came to the hill of Ammah, near Giah on the way to the wasteland of Gibeon.

25 Then the men of Benjamin rallied behind Abner. They formed themselves into a group and took their stand on top of a hill.

26 Abner called out to Joab, "Must the sword devour forever? Don't you realize that this will end in bitterness? How long before you order your men to stop pursuing their brothers?"

27 Joab answered, "As surely as God lives, if you had not spoken, the men would have continued the pursuit of their brothers until morning."

28 So Joab blew the trumpet, and all the men came to a halt; they no longer pursued Israel, nor did they fight anymore.

29 All that night Abner and his men marched through the Arabah. They crossed the Jordan, continued through the whole Bithron and came to Mahanaim.

30 Then Joab returned from pursuing Abner and assembled all his men. Besides Asahel, nineteen of David's men were found missing.

31 But David's men had killed three hundred and sixty Benjamites who were with Abner.

32 They took Asahel and buried him in his father's tomb at Bethlehem. Then Joab and his men marched all night and arrived at Hebron by daybreak.

2월 17일 수요일

2 Samuel 3:1~11

1 The war between the house of Saul and the house of David lasted a long time. David grew stronger and stronger, while the house of Saul grew weaker and weaker.

2 Sons were born to David in Hebron: His firstborn was Amnon the son of Ahinoam of Jezreel;

3 his second, Kileab the son of Abigail the widow of Nabal of Carmel; the third, Absalom the son of Maacah daughter of Talmi king of Geshur;

4 the fourth, Adonijah the son of Haggith; the fifth, Shephatiah the son of Abital;

5 and the sixth, Ithream the son of David's wife Eglah. These were born to David in Hebron.

6 During the war between the house of Saul and the house of David, Abner had been strengthening his own position in the house

of Saul.

- 7 Now Saul had had a concubine named Rizpah daughter of Aiah. And Ish-Bosheth said to Abner, "Why did you sleep with my father's concubine?"
- 8 Abner was very angry because of what Ish-Bosheth said and he answered, "Am I a dog's head--on Judah's side? This very day I am loyal to the house of your father Saul and to his family and friends. I haven't handed you over to David. Yet now you accuse me of an offense involving this woman!"
- 9 May God deal with Abner, be it ever so severely, if I do not do for David what the LORD promised him on oath
- 10 and transfer the kingdom from the house of Saul and establish David's throne over Israel and Judah from Dan to Beersheba."
- 11 Ish-Bosheth did not dare to say another word to Abner, because he was afraid of him.

2월 18일 목요일

2 Samuel 3:12~21

- 12 Then Abner sent messengers on his behalf to say to David, "Whose land is it? Make an agreement with me, and I will help you bring all Israel over to you."
- 13 "Good," said David. "I will make an agreement with you. But I demand one thing of you: Do not come into my presence unless you bring Michal daughter of Saul when you come to see me."
- 14 Then David sent messengers to Ish-Bosheth son of Saul, demanding, "Give me my wife Michal, whom I betrothed to myself for the price of a hundred Philistine foreskins."
- 15 So Ish-Bosheth gave orders and had her taken away from her husband Paltiel son of Laish.
- 16 Her husband, however, went with her, weeping behind her all the way to Bahurim. Then Abner said to him, "Go back home!" So he went back.
- 17 Abner conferred with the elders of Israel and said, "For some time you have wanted to make David your king.
- 18 Now do it! For the LORD promised David, 'By my servant David I will rescue my
- people Israel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and from the hand of all their enemies.'"
- 19 Abner also spoke to the Benjamites in person. Then he went to Hebron to tell David everything that Israel and the whole house of Benjamin wanted to do.
- 20 When Abner, who had twenty men with him, came to David at Hebron, David prepared a feast for him and his men.
- 21 Then Abner said to David, "Let me go at once and assemble all Israel for my lord the king, so that they may make a compact with you, and that you may rule over all that your heart desires." So David sent Abner away, and he went in peace.

2월 19일 금요일

2 Samuel 3:22~30

- 22 Just then David's men and Joab returned from a raid and brought with them a great deal of plunder. But Abner was no longer with David in Hebron, because David had sent him away, and he had gone in peace.
- 23 When Joab and all the soldiers with him arrived, he was told that Abner son of Ner had come to the king and that the king had sent him away and that he had gone in peace.
- 24 So Joab went to the king and said, "What have you done? Look, Abner came to you. Why did you let him go? Now he is gone!"
- 25 You know Abner son of Ner; he came to deceive you and observe your movements and find out everything you are doing."
- 26 Joab then left David and sent messengers after Abner, and they brought him back from the well of Sirah. But David did not know it.
- 27 Now when Abner returned to Hebron, Joab took him aside into the gateway, as though to speak with him privately. And there, to avenge the blood of his brother Asahel, Joab stabbed him in the stomach, and he died.
- 28 Later, when David heard about this, he said, "I and my kingdom are forever innocent before the LORD concerning the blood of Abner son of Ner.
- 29 May his blood fall upon the head of Joab and upon all his father's house! May Joab's house never be without someone who has a running sore or leprosy or who leans on a

crutch or who falls by the sword or who lacks food."

- 30 (Joab and his brother Abishai murdered Abner because he had killed their brother Asahel in the battle at Gibeon.)

2월 20일 토요일

2 Samuel 3:31~39

- 31 Then David said to Joab and all the people with him, "Tear your clothes and put on sackcloth and walk in mourning in front of Abner." King David himself walked behind the bier.
- 32 They buried Abner in Hebron, and the king wept aloud at Abner's tomb. All the people wept also.
- 33 The king sang this lament for Abner: "Should Abner have died as the lawless die?"
- 34 Your hands were not bound, your feet were not fettered. You fell as one falls before wicked men." And all the people wept over him again.
- 35 Then they all came and urged David to eat something while it was still day; but David took an oath, saying, "May God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I taste bread or anything else before the sun sets!"
- 36 All the people took note and were pleased; indeed, everything the king did pleased them.
- 37 So on that day all the people and all Israel knew that the king had no part in the murder of Abner son of Ner.
- 38 Then the king said to his men, "Do you not realize that a prince and a great man has fallen in Israel this day?"
- 39 And today, though I am the anointed king, I am weak, and these sons of Zeruiah are too strong for me. May the LORD repay the evildoer according to his evil deeds!"

2월 21일 주일

2 Samuel 4:1~12

- 1 When Ish-Bosheth son of Saul heard that Abner had died in Hebron, he lost courage, and all Israel became alarmed.
- 2 Now Saul's son had two men who were leaders of raiding bands. One was named Baanah and the other Recab; they were sons of Rimmon the Beerothite from the

tribe of Benjamin--Beeroth is considered part of Benjamin,

- 3 because the people of Beeroth fled to Gittaim and have lived there as aliens to this day.
- 4 (Jonathan son of Saul had a son who was lame in both feet. He was five years old when the news about Saul and Jonathan came from Jezreel. His nurse picked him up and fled, but as she hurried to leave, he fell and became crippled. His name was Mephibosheth.)
- 5 Now Recab and Baanah, the sons of Rimmon the Beerothite, set out for the house of Ish-Bosheth, and they arrived there in the heat of the day while he was taking his noonday rest.
- 6 They went into the inner part of the house as if to get some wheat, and they stabbed him in the stomach. Then Recab and his brother Baanah slipped away.
- 7 They had gone into the house while he was lying on the bed in his bedroom. After they stabbed and killed him, they cut off his head. Taking it with them, they traveled all night by way of the Arabah.
- 8 They brought the head of Ish-Bosheth to David at Hebron and said to the king, "Here is the head of Ish-Bosheth son of Saul, your enemy, who tried to take your life. This day the LORD has avenged my lord the king against Saul and his offspring."
- 9 David answered Recab and his brother Baanah, the sons of Rimmon the Beerothite, "As surely as the LORD lives, who has delivered me out of all trouble,
- 10 when a man told me, 'Saul is dead,' and thought he was bringing good news, I seized him and put him to death in Ziklag. That was the reward I gave him for his news!
- 11 How much more--when wicked men have killed an innocent man in his own house and on his own bed--should I not now demand his blood from your hand and rid the earth of you!"
- 12 So David gave an order to his men, and they killed them. They cut off their hands and feet and hung the bodies by the pool in Hebron. But they took the head of Ish-Bosheth and buried it in Abner's tomb at Hebron.

2월 22일 월요일

2 Samuel 5:1~12

- 1 All the tribes of Israel came to David at Hebron and said, "We are your own flesh and blood.
- 2 In the past, while Saul was king over us, you were the one who led Israel on their military campaigns. And the LORD said to you, 'You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and you will become their ruler.'"
- 3 When all the elders of Israel had come to King David at Hebron, the king made a compact with them at Hebron before the LORD, and they anointed David king over Israel.
- 4 David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forty years.
- 5 In Hebron he reigned over Judah seven years and six months, and in Jerusalem he reigned over all Israel and Judah thirty-three years.
- 6 The king and his men marched to Jerusalem to attack the Jebusites, who lived there. The Jebusites said to David, "You will not get in here; even the blind and the lame can ward you off." They thought, "David cannot get in here."
- 7 Nevertheless, David captured the fortress of Zion, the City of David.
- 8 On that day, David said, "Anyone who conquers the Jebusites will have to use the water shaft to reach those 'lame and blind' who are David's enemies." That is why they say, "The 'blind and lame' will not enter the palace."
- 9 David then took up residence in the fortress and called it the City of David. He built up the area around it, from the supporting terraces inward.
- 10 And he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because the LORD God Almighty was with him.
- 11 Now Hiram king of Tyre sent messengers to David, along with cedar logs and carpenters and stonemasons, and they built a palace for David.
- 12 And David knew that the LORD had established him as king over Israel and had exalted his kingdom for the sake of his people Israel.

2월 23일 화요일

2 Samuel 5:13~25

- 13 After he left Hebron, David took more concubines and wives in Jerusalem, and more sons and daughters were born to him.
- 14 These are the names of the children born to him there: Shammua, Shobab, Nathan, Solomon,
- 15 Ibhar, Elishua, Nepheg, Japhia,
- 16 Elishama, Eliada and Eliphelet.
- 17 When the Philistines heard that David had been anointed king over Israel, they went up in full force to search for him, but David heard about it and went down to the stronghold.
- 18 Now the Philistines had come and spread out in the Valley of Rephaim;
- 19 so David inquired of the LORD, "Shall I go and attack the Philistines? Will you hand them over to me?" The LORD answered him, "Go, for I will surely hand the Philistines over to you."
- 20 So David went to Baal Perazim, and there he defeated them. He said, "As waters break out, the LORD has broken out against my enemies before me." So that place was called Baal Perazim.
- 21 The Philistines abandoned their idols there, and David and his men carried them off.
- 22 Once more the Philistines came up and spread out in the Valley of Rephaim;
- 23 so David inquired of the LORD, and he answered, "Do not go straight up, but circle around behind them and attack them in front of the balsam trees.
- 24 As soon as you hear the sound of marching in the tops of the balsam trees, move quickly, because that will mean the LORD has gone out in front of you to strike the Philistine army."
- 25 So David did as the LORD commanded him, and he struck down the Philistines all the way from Gibeon to Gezer.

2월 24일 수요일

2 Samuel 6:1~11

- 1 David again brought together out of Israel chosen men, thirty thousand in all.
- 2 He and all his men set out from Baalah of Judah to bring up from there the ark of God, which is called by the Name,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who is enthroned between the cherubim that are on the ark.
- 3 They set the ark of God on a new cart and brought it from the house of Abinadab, which was on the hill. Uzzah and Ahio, sons of Abinadab, were guiding the new cart
- 4 with the ark of God on it, and Ahio was walking in front of it.
- 5 David and the whole house of Israel were celebrating with all their might before the LORD, with songs and with harps, lyres, tambourines, sistrums and cymbals.
- 6 When they came to the threshing floor of Nacon, Uzzah reached out and took hold of the ark of God, because the oxen stumbled.
- 7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Uzzah because of his irreverent act; therefore God struck him down and he died there beside the ark of God.
- 8 Then David was angry because the LORD's wrath had broken out against Uzzah, and to this day that place is called Perez Uzzah.
- 9 David was afraid of the LORD that day and said, "How can the ark of the LORD ever come to me?"
- 10 He was not willing to take the ark of the LORD to be with him in the City of David. Instead, he took it aside to the house of Obed-Edom the Gittite.
- 11 The ark of the LORD remained in the house of Obed-Edom the Gittite for three months, and the LORD blessed him and his entire household.

2월 25일 목요일

2 Samuel 6:12~23

- 12 Now King David was told, "The LORD has blessed the household of Obed-Edom and everything he has, because of the ark of God." So David went down and brought up the ark of God from the house of Obed-Edom to the City of David with rejoicing.
- 13 When those who were carrying the ark of the LORD had taken six steps, he sacrificed a bull and a fattened calf.
- 14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 15 while he and the entire house of Israel brought up the ark of the LORD with shouts and the sound of trumpets.
- 16 As the ark of the LORD was entering the City of David, Michal daughter of Saul watched from a window. And when she saw King David leaping and dancing before the LORD, she despised him in her heart.
- 17 They brought the ark of the LORD and set it in its place inside the tent that David had pitched for it, and David sacrific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before the LORD.
- 18 After he had finished sacrificing the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he blessed the people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 19 Then he gave a loaf of bread, a cake of dates and a cake of raisins to each person in the whole crowd of Israelites, both men and women. And all the people went to their homes.
- 20 When David returned home to bless his household, Michal daughter of Saul came out to meet him and said, "How the king of Israel has distinguished himself today, disrobing in the sight of the slave girls of his servants as any vulgar fellow would!"
- 21 David said to Michal, "It was before the LORD, who chose me rather than your father or anyone from his house when he appointed me ruler over the LORD's people Israel--I will celebrate before the LORD.
- 22 I will become even more undignified than this, and I will be humiliated in my own eyes. But by these slave girls you spoke of, I will be held in honor."
- 23 And Michal daughter of Saul had no children to the day of her death.

2월 26일 금요일

2 Samuel 7:1~17

- 1 After the king was settled in his palace and the LORD had given him rest from all his enemies around him,
- 2 he said to Nathan the prophet, "Here I am, living in a palace of cedar, while the ark of God remains in a tent."
- 3 Nathan replied to the king, "Whatever you have in mind, go ahead and do it, for the LORD is with you."
- 4 That night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Nathan, saying:
- 5 "Go and tell my servant David, 'This is what the LORD says: Are you the one to build me a house to dwell in?'"
- 6 "I have not dwelt in a house from the day I brought the Israelites up out of Egypt to this day. I have been moving from place to place with a tent as my dwelling."
- 7 "Wherever I have moved with all the Israelites, did I ever say to any of their rulers whom I commanded to shepherd my people Israel, 'Why have you not built me a house of cedar?'"
- 8 "Now then, tell my servant David,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I took you from the pasture and from following the flock to be ruler over my people Israel."
- 9 "I have been with you wherever you have gone, and I have cut off all your enemies from before you. Now I will make your name great, like the names of the greatest men of the earth."
- 10 "And I will provide a place for my people Israel and will plant them so that they can have a home of their own and no longer be disturbed. Wicked people will not oppress them anymore, as they did at the beginning."
- 11 "and have done ever since the time I appointed leaders over my people Israel. I will also give you rest from all your enemies."
- 12 "The LORD declares to you that the LORD himself will establish a house for you:
- 13 "When your days are over and you rest with your fathers, I will raise up your offspring to succeed you, who will come from your own body, and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 14 "He is the one who will build a house for my Name, and I will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forever."
- 15 "I will be his father, and he will be my son."

When he does wrong, I will punish him with the rod of men, with floggings inflicted by men.

- 15 But my love will never be taken away from him, as I took it away from Saul, whom I removed from before you.
- 16 Your house and your kingdom will endure forever before me; your throne will be established forever."
- 17 Nathan reported to David all the words of this entire revelation.

2월 27일 토요일

2 Samuel 7:18~29

- 18 Then King David went in and sat before the LORD, and he said: "Who am I, O Sovereign LORD, and what is my family, that you have brought me this far?"
- 19 And as if this were not enough in your sight, O Sovereign LORD, you have also spoken about the future of the house of your servant. Is this your usual way of dealing with man, O Sovereign LORD?
- 20 "What more can David say to you? For you know your servant, O Sovereign LORD."
- 21 For the sake of your word and according to your will, you have done this great thing and made it known to your servant."
- 22 "How great you are, O Sovereign LORD! There is no one like you, and there is no God but you, as we have heard with our own ears."
- 23 And who is like you people Israel--the one nation on earth that God went out to redeem as a people for himself, and to make a name for himself, and to perform great and awesome wonders by driving out nations and their gods from before your people, whom you redeemed from Egypt?"
- 24 You have established your people Israel as your very own forever, and you, O LORD, have become their God."
- 25 "And now, LORD God, keep forever the promise you have made concerning your servant and his house. Do as you promised, so that your name will be great forever. Then men will say, 'The LORD Almighty is God over Israel!' And the house of your servant David will be established before you."
- 27 "O LORD Almighty, God of Israel, you have revealed this to your servant, saying, 'I will

build a house for you.' So your servant has found courage to offer you this prayer.

28 O Sovereign LORD, you are God! Your words are trustworthy, and you have promised these good things to your servant.

29 Now be pleased to bless the house of your servant, that it may continue forever in your sight; for you, O Sovereign LORD, have spoken, and with your blessing the house of your servant will be blessed forever."

2월 28일 주일

2 Samuel 8:1~18

1 In the course of time, David defeated the Philistines and subdued them, and he took Metheg Ammah from the control of the Philistines.

2 David also defeated the Moabites. He made them lie down on the ground and measured them off with a length of cord. Every two lengths of them were put to death, and the third length was allowed to live. So the Moabites became subject to David and brought tribute.

3 Moreover, David fought Hadadezer son of Rehob, king of Zobah, when he went to restore his control along the Euphrates River.

4 David captured a thousand of his chariots, seven thousand charioteers and twenty thousand foot soldiers. He hamstringed all but a hundred of the chariot horses.

5 When the Arameans of Damascus came to help Hadadezer king of Zobah, David struck down twenty-two thousand of them.

6 He put garrisons in the Aramean kingdom of Damascus, and the Arameans became subject to him and brought tribute. The LORD gave David victory wherever he went.

7 David took the gold shields that belonged to the officers of Hadadezer and brought them to Jerusalem.

8 From Tebah and Berothai, towns that belonged to Hadadezer, King David took a great quantity of bronze.

9 When Tou king of Hamath heard that David had defeated the entire army of Hadadezer,

10 he sent his son Joram to King David to

greet him and congratulate him on his victory in battle over Hadadezer, who had been at war with Tou. Joram brought with him articles of silver and gold and bronze.

11 King David dedicated these articles to the LORD, as he had done with the silver and gold from all the nations he had subdued:

12 Edom and Moab, the Ammonites and the Philistines, and Amalek. He also dedicated the plunder taken from Hadadezer son of Rehob, king of Zobah.

13 And David became famous after he returned from striking down eighteen thousand Edomites in the Valley of Salt.

14 He put garrisons throughout Edom, and all the Edomites became subject to David. The LORD gave David victory wherever he went.

15 David reigned over all Israel, doing what was just and right for all his people.

16 Joab son of Zeruiah was over the army; Jehoshaphat son of Ahilud was recorder;

17 Zadok son of Ahitub and Ahimelech son of Abiathar were priests; Seraiah was secretary;

18 Benaiah son of Jehoiada was over the Kerethites and Pelethites; and David's sons were royal advisers.

2월 29일 월요일

2 Samuel 9:1~13

1 David asked, "Is there anyone still left of the house of Saul to whom I can show kindness for Jonathan's sake?"

2 Now there was a servant of Saul's household named Ziba. They called him to appear before David, and the king said to him, "Are you Ziba?" "Your servant," he replied.

3 The king asked, "Is there no one still left of the house of Saul to whom I can show God's kindness?" Ziba answered the king, "There is still a son of Jonathan; he is crippled in both feet."

4 "Where is he?" the king asked. Ziba answered, "He is at the house of Makir son of Ammiel in Lo Debar."

5 So King David had him brought from Lo Debar, from the house of Makir son of Ammiel.

6 When Mephibosheth son of Jonathan, the son of Saul, came to David, he bowed down to pay him honor. David said,

- "Mephibosheth!" "Your servant," he replied.
- 7 "Don't be afraid," David said to him, "for I will surely show you kindness for the sake of your father Jonathan. I will restore to you all the land that belonged to your grandfather Saul, and you will always eat at my table."
- 8 Mephibosheth bowed down and said, "What is your servant, that you should notice a dead dog like me?"
- 9 Then the king summoned Ziba, Saul's servant, and said to him, "I have given your master's grandson everything that belonged to Saul and his family.
- 10 You and your sons and your servants are to farm the land for him and bring in the crops, so that your master's grandson may be provided for. And Mephibosheth, grandson of your master, will always eat at my table." (Now Ziba had fifteen sons and twenty servants.)
- 11 Then Ziba said to the king, "Your servant will do whatever my lord the king commands his servant to do." So Mephibosheth ate at David's table like one of the king's sons.
- 12 Mephibosheth had a young son named Mica, and all the members of Ziba's household were servants of Mephibosheth.
- 13 And Mephibosheth lived in Jerusalem, because he always ate at the king's table, and he was crippled in both fee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6년 2월

Copyright© 2016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권명옥 · 집필진 | 이경민 정용만 정양선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